

Cover Story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GFEZ

세계최대규모의 철강 산업과 기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여러분의 가치와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GFEZ Journal

Winter 2017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ONTENTS

Vol. 66
Winter
2017

실현은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가져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가 실현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넓어진 시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실현해 나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知

04 66th Theme Poem
겨울, 그리고 봄

06 Theme Story
작은 성공과 느린 실현

通

08 HOT Topic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역인재들의 취업난 해소
2017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

10 Brief News
광양청 10대뉴스

14 CEO Column
겨울눈을 품는 마음으로 '이듬해' 를 준비합니다.

16 Interview
왕성한 활동과 소통으로 한 마음이 되어
더욱 성장하는 광양만권 정현복 광양시장

18 GFEZ People
몽드셀렉션 금상에 빛나는 기업 ㈜HAM

22 Invest in GFEZ
광양항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서측배후단지

24 Local News
주요기관 소식

言

26 Trip
혼자여도, 함께여도 따뜻한 겨울 여수

30 Festival
겨울이라고 웅크리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

32 Work
음주운전 적발시 받게 될
자동차보험상의 불이익 7가지

34 Economy
자동차 할부!
알뜰하게 챙기는 유용한 정보 TIP

36 Cartoon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통해
기업유치 비용의 부담을 덜어보아요!

38 독자후기 & 이벤트 SNS

08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역인재들의 취업난 해소

18 몽드셀렉션 금상에 빛나는 기업 ㈜HAM

14 겨울눈을 품는 마음으로 '이듬해' 를 준비합니다.

22 광양항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의활성화 서측배후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저널 Vol. 66
발행인
서기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
편집인
(주)DNS
발행일
2017년 12월 18일 (통권 제66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전남, 바00035
홈페이지
www.gfez.go.kr

66th Theme Poem

글 황성희
순천시 신대지구

겨울, 그리고 봄

나이 때문이었다
좀처럼
혹한이란 날을 듣지도
눈도 볼 수 없는
남도 끝자락 겨울인데,
자꾸 한기를 느껴
옷깃을 여미며
멀어져 간 청춘과
사라져 간 꿈들과
걷고 또 걷는 것은

나이 때문이다
아직
꼬박 꼬박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집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기억 못하는 남편과
물만 먹고도 꽃처럼 자랄 것 같은 아들과 딸이 있어



이만 하면,
햇볕 좋은 창가에 앉아
병아리 떼 같은 개나리꽃
벌떼 같은 벚꽃을 보며
아지랑이 같은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이 때문일까
고목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는
겨울에 있고
푸른 잎들처럼 활기찬 아이들은
여름에 있는데
봄인데 봄이 아닌 듯 나는,
어느 계절에 서 있는 것인가

* 본 테마시는 지역주민, 입주기업, GFEZ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입니다.

Theme Story.

작은 성공과 느린 실현

지난 한 해 동안 굵직한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진 탓에, 일상에서 거둔 승리들을 잊었을지 모른다. 내 안에 잠들어있는 것들을 깨울 시간이다. 일단 내가 생각한 실현보다 작은 단위의 성공과 승리를 적어내려가 보자. 우울은 물러가고 다음을 시작할 힘이 생겨날 것이다.
혹시 적어내려간 성공과 승리가 너무 작게 느껴져 더 우울해졌다면, 느리게 실현되는 것들의 위대함도 떠올려보자.



옷차림이 두터워지면 지난 계절들을 돌아보게 된다. 나뭇가지에 초록잎이 매달리기 시작하던 계절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여름은 어떻게 지났는지, 어떤 음악을 들었고 무슨 책을 읽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주제도 결론도 없는 생각들을 나열하다보면 올해 무엇을 해냈는지 세어보게 된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멀어졌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잘한 것들은 다 떠올리지도 못하고 금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잠시만 생각을 멈추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승리로 이어지는 작은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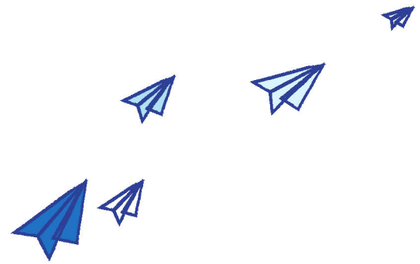
한 미식축구 팀의 쿼터백(quarterback, 팀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이끌거나 호출 신호를 책임지는 역할)이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다. 핵심 공격수가 실려나가자 감독은 벤치에 있던 후보 선수를 급히 내보냈다.
감독도 알고 있었다. 후보선수는 부상당한 쿼터백처럼 수십야드를 넘는 장거리 패스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거나, 견고한 상대 수비진을 돌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감독은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에게 비교적 쉬운 작전을 지시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원거리 패스는 포기하고 측면으로 던지는 짧은 스윙 패스를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짧은 패스는 거리가 2~3 야드에 불과하지만 성공확률은 매우 높다.
감독은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후보 선수가 주눅 들지 않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맛봐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후보 선수는 감독을 믿고 지시를 잘 수행했다. 그렇게 쿼터백의 공백이 메워졌다. 이 이야기는 조직이론의 거장 칼 와익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주창한 '작은 승리 전략(Small WinsStrategy)'의 요체다.
지난 한 해 동안 굵직한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진 탓에, 일상에서 거둔 승리들은 잊어버렸을 것이다. 내 안에 잠들어있는 것들을 깨울 시간이다. 일단 내가 생각한 실현보다 작은 단위의 성공과 승리를 적어내려가 보자. 우울은 물러가고 다음을 시작할 힘이 생겨날 것이다.
혹시 적어내려간 성공과 승리가 너무 작게 느껴져 더 우울해졌다면, 이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일을 떠올릴 차례다.

천천히 실현되는 것의 위대함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백발 노인이 뜰에서 올리브 묘목들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한심하다는 듯 물었다. "그 나무에서 언제쯤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까?" 잠깐 생각하던 노인이 답했다. "30년은 지나야 수확다운 수확을 하겠지요." 그러자 나그네가 비아냥 거렸다. "당신에게 남은 세월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노인은 멀리 보이는 과수원을 가리키며 무례한 나그네에게 말했다. "해마다 저 과수원에서 풍부한 열매를 얻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묘목을 심은 덕분이지요.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탈무드 속 백발노인은 당장의 실현을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언젠가 찾아오는 결과를 바라보고 행동했다. 천천히 실현되는 것들은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다. 누군가가 시작한 일이 나로 인해 마무리 되거나, 내가 시작하고 다른 이에게 보낸 일들을 떠올려보자. 내 앞에서 결실을 맺거나 내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는 일도 언젠가 실현되는 날이 분명 찾아온다.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올 한해 이룬 일상의 승리와 미래에 실현될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다보면 다가올 새해를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큰 목표가 있다면 작은 목표를 함께 만들어보자. 현재의 작은 성공과 미래의 거창한 성공도 함께 생각해보자.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해낼 수 있도록 나를 잘 다독이다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다.
올 한해도 고생한 그대. 잊지 말자.
당신은 생각 보다 더 멋지다.



HOT Topic

글 기업지원과

오늘은 일자리 JOB(잡)는 날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역인재들의 취업난 해소

2017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의 주관하에 지역 내 104개의 기업과 2,000여 명의 구직자 간 활발한 구인 · 구직 활동이 이루어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2017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이 주관하여, 지역 내 104개의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지역 내 구직자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이력서 접수 및 현장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에, 현장면접을 실시한 ㈜동우 등 54개의 중견 · 강소 기업관에 800여 명의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기위해 발길을 옮겼고, 그 결과 이 면접자 중 29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현장면접과는 달리, 이력서 접수의 경우는 박람회가 종료되고 개별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강소기업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파루, 해양산업 전문기업 ㈜블루오션테크, 철강제조기업 경신스틸㈜, 산업처리공정제어 장비 제조기업 ㈜협성히스코, 스틸파렛트 제조기업 ㈜승산팩 등이 참여하여, 지역 내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인 · 구직자 간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참가하는 업체의 소개가 실린 고용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해 구직자들의 정보 갈증을 풀어 주었으며, 이외에도 취업컨설팅관에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서류작성 스킬 등을 배우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또, 직업체험관에서는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커피 바리스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사들을 초청해 취업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능인력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양성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각종 시책을 통해 기업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업들의 인력난을 최소화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방면의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과 그리고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사람을 원하는 기업,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만나 서로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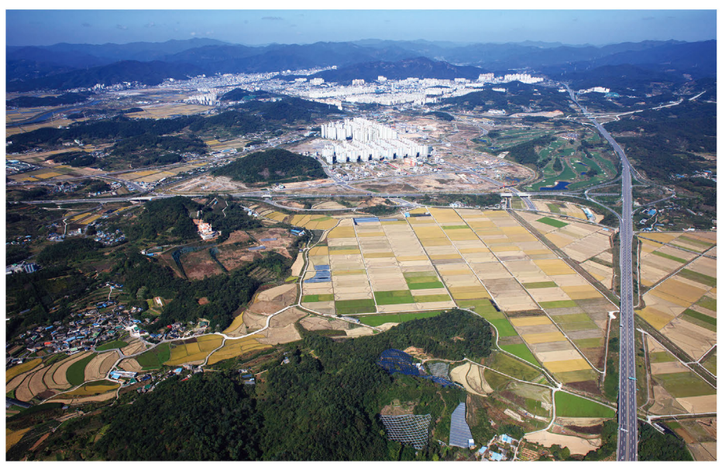
BUSINESS

01

선월하이파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제자유구역 내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투기 방지 기대

9월 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선월하이파크단지에 대해 2019년 9월 4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갖춘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명품택지로 조성된다. 광양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함으로써 보상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기간이 만료된 광양복합업무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 등 4개 단지는 오는 9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BUSINESS

02

1기업 1마을 자매결연 현판식 개최

자매결연 기업과 마을주민 소통의 시간 가져

1기업 1마을 자매결연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은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을 비롯해 ㈜이맥스아이엔시 오경만 대표, 여흥3구 김영옥 이장과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매결연 기업인 ㈜이맥스아이엔씨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배터리 재활용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생산제품 70%이상을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2017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우수기업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1기업 1마을 자매결연은 기업과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율촌산단 8개 기업과 인근 8개 마을이 지난 5월 체결하였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광양만권을 기업과 주민 모두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USINESS

03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하반기 GFEZ 중점추진과제 추진방안 논의

지난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지역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광양만권의 중장기적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 제시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GFEZ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GFEZ 경도지구 대체지정 추진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추진 ▲한중일 콜드체인 및 식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 등 13건의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오봉 청장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자문위원들에게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GFEZ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앞으로도 평소 국내외 기업활동 및 연구 · 자문활동 등 현장에서 인지한 정책수요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활발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BUSINESS

04

76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율촌 ▯ 해룡 ▯ 세풍산업단지에 4개 기업 투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27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유원산업기술, ㈜피케이엔지니어링, 운천이엔지, ㈜씨엠푸드 등 4개 기업과 투자금액 7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투자협약식에는 참여하는 기업의 이사들과 여수와 순천, 광양시 의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사들이 참석했다.

㈜유원산업기술은 율촌산업단지에 15억원을 투자하여 3,191㎡부지에 금속압력용기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피케이엔지니어링은 해룡산업단지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금속봉·금속판·절단기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운천이엔지는 해룡산업단지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철강판재(방화문) 제조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씨엠푸드는 세풍산업단지에 30억원을 투자하여 9,900㎡ 부지에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4개사의 고용인원은 모두 80명으로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며, 제철소 인접 산업단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투자 사례로 향후 연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BUSINESS

05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제10차 정례회 개최

기관별 현안사업 설명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유관기관 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제10차 정례회의를 10월 11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장, 최종선 여수부시장, 전영재 순천부시장, 신현숙 광양부시장, 김대형 하동부군수, 박정일 여수상공회의소부회장, 서호기 순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전남동부권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광양세풍산단 분양 홍보,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사업 추진, 광양항 물동량 처리 현황,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추진, 순천의 가을 축제 홍보, 광양의 가을여행주간 테마관광 상품 운영, 하동의 지리산 회남재 숲길걷기 등 총 11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 교환을 하였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전남동부권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따른 기관 협조사항 및 율촌제2산단 적기 개발을 위한 준설 토 투기, 광양만권 관내 가을 축제 홍보 방안 등 기관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BUSINESS

06

광양만권 개발 및 투자 활성화에 매진해온
권오봉 청장 10.23일 퇴임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퇴임식이 23일 오후 2시 30분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기업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오봉 청장은 2015년 7월 취임 이후 적극적인 지역개발과 전략적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조 및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유치는 취임 이후 91개사 약 2조 8천억 원 실현과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FTA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뿌리 산업, 신산업, 기능성 화학 등 광양만권의 미래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해왔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수 경도와 화양지구를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매진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율촌 제1, 2산단을 개발하였고,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을 위해, 식품 관련 저장, 가공, 유통 분야의 중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였다.

이 밖에도 애버딘 대학, 기능성화학 융복합 실증화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여, 광양만권의 기술, 인재 등의 분야에도 기여했다.

이날 권오봉 청장은 "광양만권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며, 그동안의 성과는 직원 모두와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약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고 소회를 피력하면서



광양만권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BUSINESS

07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협력 관계 약속
양 기관, 투자유치 협력 및 홍보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광양경제청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하 미주총연)와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강영기 미주총연 총회장을 대표 단장으로 아틀랜타, 뉴욕, 플로리다 등 미주총연 지역 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유망 타깃기업, 투자자 발굴 업무 관련 효과적인 홍보 협조 등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미주총연은 78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 지부를 중심으로 150만 명 한인상공인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거미줄 같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 내 주요 기업은 물론 한국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깊은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의 경제 무역 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주총연 강영기 총회장은 이날 광양경제청의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향후 광양만권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주총연 방문단은 이날 광양만권의 율촌 자유무역지역, 광양항 마린센터 등 현장시찰을 하였으며, 3일에는 화양지구를 방문하였다.



BUSINESS

08



2017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나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POSCO 백운산 수련관에서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유치 담당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4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안내, 대(對)한국 외투기업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의 주제별 특강과 GFEZ 투자기업인 피엠씨텍의 투자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5일에는 '비즈니스 매너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과 산업단지 및 외투지역 기업 유치 실무 이해 특강과 GFEZ 투자유치 활성화 및 PM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제별 특별강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투자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 최장성 투자기획실장, 안명현 전문위원 등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초빙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윤광수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투자유치 최신 정보와 관련 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GFEZ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USINESS

09



백문이 불여일견! 홍보정책자문위원회 화양지구 견학
GFEZ 인지도 제고…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널리 알리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17 제3차 홍보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계와 언론계,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전과 달리 화양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일상해양산업㈜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했으며, 최근 편입된 여수 경도지구와 함께 남해안권 관광 허브로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안에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서기원 광양경제청장 직무대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참신한 홍보방안 발굴을 위해 현장을 직접 둘러볼 필요가 있다며 화양지구를 직접 느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훌륭한 홍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BUSINESS

10



제24회 가치공유 회의 개최
저명인사 초청 특강 및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표 등 시간 가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5일 제24회 가치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ND의원 박민수 원장이 '생체나이 10년 되돌리는 거꾸로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강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소속직원의 광양만권 기업입주 절차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전 직원이 이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특강에 앞서 소속 공무원 5명과 민간인 1명[㈜한양 주선도 팀장]은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표창장을 전수받았다.

서기원 청장 직무대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강은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직원들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만큼 당초 계획 중 미진한 부분은 잘 마무리하고 , 또한 내년도 업무 계획에 부족한 점은 없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재차당부했다.

CEO Column

글 서기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

확신과 열정으로 실현시키는 미래

겨울눈을 품는 마음으로 '이듬해'를 준비합니다.

열망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11월 22일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향후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누구에게나 꿈꾸고 그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실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현이란 확고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겨울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싱싱했던 여름 녹음, 화려했던 가을 단풍이 차례로 물러난 이후 찾아오는 겨울은 을씨년스럽게 보이지만 내년의 더 푸르른 봄을 위한 준비의 계절입니다.

가지마다 이파리 다 털어내고 앙상한 겨울나무는 마치 생명활동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봄의 새순이 될 가지 사이 겨울눈을 살뜰히 보호하며 이듬해를 대비하는 가장 분주한 시기를 보냅니다.

겨울나무는 눈과 얼음이라는 겨울눈에게 강인함을 의히게 하는 자연의 수업을 함께 하며, 다음 해의 우거진 녹음의 시기를 준비합니다.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역시도 이듬해를 치열하게 준비하는 겨울나무의 마음과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살이에서 새순이란 다음 세대를 의미할 것이며, 산업사회에선 건강한 젊은 인력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이듬해를 준비하는 나무와 같은 우리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한국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한 일환으로 광양경제청은 지난 11월 16일 여수고용노동지청과 함께 '2017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물론 광주, 목포지역 등에서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 구직자 2,000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역량 있는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알찬 취업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016년 광양 · 여수 · 율촌 등 전남동부권 산업단지 인력수요조사 결과 채용 예정인원이 1천 명이 넘었으며, 당시 박람회가 적절한 매칭 역할을 했습니다.

2017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친 올해도 좋은 성과들의 릴레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열망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이루어 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명품 리조트', 한국의 모나코 조성을 목표로 1조 5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11월 22일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상교량 등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인 · 허가의 의제처리가 가능케 되면서 향후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도지구가 기존 개발중인 관광레저단지인 화양지구와 연계되어 광양만권이 남해안권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다양한 업체들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내 · 외 투자유치활동에 매진하며, 기업이 입주한 후에는 활동할 터전에 걸림돌이 없이 발전하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합니다.

또한 입주기업들에게 창의적인 인력을 공급하고자 인재 배양과 발굴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광양경제청은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라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 한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라며,

새로 떠오르는 무술년의 힘찬 태양처럼 광양만권의 미래도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밝히는 광양만권의 미래

왕성한 활동과 소통으로 더욱 성장하는 광양만권

정현복 광양시장

- 제7대 광양시 시장
- 전라남도 광양시 부시장
- 전라남도 신안군 부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Q 시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광양시장 정현복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광양시와 전남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오다가 광양부시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광양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 큰 광양시와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전남도립미술관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시 예산 1조원 달성', '152개 기업 유치와 12,0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철강과 항만 산업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경제중심도시이자, 문화와 예술,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Q 3개시 광역교통망 구축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었으면 하는 여론이 90%이상으로 지지가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A 3개시 간에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여수~광양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서 대중교통 연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오다 지난 10월 25일 '시내서브 광역교통망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1월 1일 여수 · 순천 · 광양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광역교통망을 개통하고, 광역무료 환승은 내년 6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3개시 간의 교통 연계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3개시가 상호 협력과 보완 관계를 형성해 더욱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세풍산업단지 조성이 광양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풍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세풍산단은 광양시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단지로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가 무척 큽니다.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풍산단 핵심 사업으로는 먼저, 총사업비 602억 원이 투입되는 기능성화학클러스터 구축입니다. R&D 사업에 209억 원, 융복합실증화지원센터 구축에 393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특히, 연면적 7,462㎡의 부지에 세워질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의 규모입니다.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는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R&D 기업의 신규투자와 소재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1월 2일 82,641㎡ 규모로 지정 고시된 '외국인투자지역' 입니다. 총246억 원이 투자되어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풍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 입주 외투기업에게 법인세, 취득세 등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 유망 소재·부품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광양만 발전을 위해 3개시 관광크루즈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요 사업계획과 광양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광양, 여수, 순천 3개시가 관광 분야에서 협력할 때 경쟁력은 더욱 커지며, 외국인 관광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대상 공동 기항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테마 중심의 상품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추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공동마케팅'을 통해 부족한 인적, 재정적 한계 등을 극복하여, 여러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광양만권 광역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 공동마케팅과 LF 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의 면세점, 은련카드 결제시스템, 글로벌 ATM의 확대, 외국어 병행 표기 등
외국인 관광객 쇼핑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입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은?

A 우리 광양시는 광양만권의 공동 번영을 위해 '수도권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 확대', '순천~완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여수공항 활성화 공동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광양·여수·순천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발전을 위해 제3섹터방식으로 '와우지구', '성황·도이지구',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고, 11개소 2,000억 원을 투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투자 유치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가 2019년까지 조성되고,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단지 구축과 광양항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에 9,195억 원이 투자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이 행복', '청년 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 도시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 희망이 있고, 모든 시민이 고루 잘사는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FEZ People

취재 송명석
글 안이슬

탄탄한 기반의 중국투자기업

몽드셀렉션 금상에 빛나는 기업

㈜ HAM

HAM이 생산한 유가공품 베카리(Bekari)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몽드셀렉션으로부터 건강식품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주 생산품은 1세~3세 영유아용 분유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인용과 임신부용 분유와 조제분유, 고체음료 등 유제품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가공·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 이인위본(以人爲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가치관 안에서 탄탄한 기반,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들로 2년 연속 국제식품평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쟁력있는 기업이다.

HAM은 지난해 4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100억여원을 투자해 입주한 중국 기업이다. 연간 5,000t 분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HAM이 생산한 유가공품 베카리(Bekari)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몽드셀렉션으로부터 건강식품 분야 금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몽드셀렉션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적 권위의 소비재 품질 평가기관으로, 1961년부터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미용·음료·음식·건강·주류 등 각 부문별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과학자 등 전문가 70명 이상이 혁신성, 과학적 유효성 등 20여개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4개월에 걸쳐 평가해 최우수 금상(Grand Gold Medal), 금상, 은상, 동상을 각각 선정한다. 올해는 394개 기업의 3,000여개 제품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는데 이 중 금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기업, HAM의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 呂咸煜(Lu Xianyu)

HAM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우리 기업의 본사는 '이핀유업'으로 중국 내에서만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다. 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유 배합 기술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년 연속 국제식품평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HAM의 생산하는 제품과 주력 제품을 소개한다면?

주 생산품은 1세~3세 영유아용 분유다. 더불어 성인용과 임신부용 분유와 조제분유, 고체음료 등 유제품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가공·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유산균 포함 분유와 다이어트 분유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중국을 위주로 수출하며, 동남아와 중동에도 수출하고 있다.

HAM에서 개발한 베카리(Bekari)가 세계적 권위의 몽드셀렉션으로부터 건강식품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어떤 제품인지?

베카리는 국내 최초 탈염 양유청 생산기술로 만들어진 영유아 분유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산양유 원유 100%로 제조하여 아기의 소화를 방해하는 α-s1 카세인 단백질이 거의 없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적어 유아식에 적절하다.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뇌기능발달에 도움을 주는 DHA, ARA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100억여원을 투자해 입주한 HAM은 연간 5,000t의 분유 생산과 저장 능력을 갖추었으며, 생산된 분유는 전량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한다.

향후 개발될 제품들도 궁금하다.

영유아의 소화와 성장 발육에 도움되는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인용, 중·장년을 위한 분유도 개발할 계획인데, 노령화 문제에 맞추어 노인들의 칼슘개선과 소화 개선을 위한 제품을 개발 예정이다. 중장년, 노년을 위한 분유 개발은 이미 임상실험단계에 있다. 중·장년, 노년들의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생산을 할 계획이며, 세계의 영양학에 따라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할 것이다.

광양만권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광양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자 기후가 좋은 곳이다. 공기 질이 좋고 기온이 온화하여 우리 기업의 분유 가공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기업은 주로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수한 환경 조건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광양은 우수한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 내에서 많은 지역을 탐색하다가 상품 수출입에 유리한 국제항만인 광양항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광양만권에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중국 외투기업으로서 광양만에 유치하게 되기까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투자부터 설립까지 모든 게 큰 어려움이었다. 사업에 관련된 한국의 법규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항만공사, 광양시청에서 세무와 법무 방면으로 계속 대화를 하며 도움받았다. 또한 TQR인증(저율관세할당)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광양만권에 입주해있는 기업으로서 제시하는 광양만권의 발전상이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기업이 투자를 결심하면서부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파악, 수출입 관계, 세무, 법무 방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심도 있고 신속한 도움을 주었다.
현재까지의 도움에 매우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 회사는 제품생산 초기 물량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제품의 판매단계에 돌입할 시기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세계 시장 진출과 관련한 기회가 있다면 시장개척에 도움을 받고 싶다. 이를테면 경제청에서 세계박람회 등에 참가할 때 함께 참가해 우리 제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HAM의 비전과 각오가 있다면?

우리 기업은 광양만권이라는 무대를 통하여 우리의 상품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동남아를 시작으로 중동, 유럽, 미주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공장은 현재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한국 내의 유제품 기업과 협력하여 한국 시장에도 우리의 제품을 선보이고 싶다.



임직원들과 속닥속닥

Q1 우리 기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1 **한광성** HAM은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반이 매우 탄탄한 회사이다. 이러한 긴 역사와 탄탄한 기반에서 비롯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분유 배합 기술, 그리고 각 분야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 기술력이 HAM의 가장 큰 강점이다.

Q2 HAM의 자랑할 만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A2 **한광성** 일전에 직원이 경미하게 다쳤던 적이 있었다. 이때, 회장님의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에 직원 모두가 큰 감동 받았다. 우리 회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한중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한국 서로의 문화가 융화를 이루며 공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Q3 회사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3 **한광성** 많은 이점들을 고려하여 광양만에 투자했지만, 처음 이곳에 와서 입주할 때는 이곳이 허허벌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광양만에 투자해 입주하기까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고마워서인지, 특정 어느 한 순간이 기억에 남기보다는, 도움받았던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소중하다.

Q4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4 **한광성** 지금 HAM은 초기투자이자 시범투자 형태다. 서측배후부지에 7천만 불 이상의 투자가 더 이뤄져야 했지만, 한·중 외교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중 간의 외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지금을 다시 기회로 삼아 초기 투자에 더 박차를 가하여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한다. 그래서 추후에 있을 2차 투자까지 크게 이어졌으면 한다. 나아가 광양항의 발전과 취업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좋겠다.

글 홍보담당관실



광양항 배후단지의 마지막 부지

광양항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_서측배후단지

중국식품산업의 투자와 물류 · 창고업을 기반으로, 한 · 중 · 일을 잇는 식품산업의 클러스터와 콜드체인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배후단지' 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 국가가 지정 ·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여 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제조 활동을 영위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임대단지와 입주기업의 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 · 위락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편의시설 단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 광양만에 위치한 서측배후단지는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활성화 대책' 에 따라 서측배후단지 내 5개의 특성화 ZONE 운영 중으로 각 ZONE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광양항의 현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biz 모델 개발과 부지 운영으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되었다.

현재 이 5개 ZONE을 구성하는 업체들은 총 13개 기업으로, 이 중 현재 7개 기업이 입주 중이며, 나머지 6개 기업이 입주예정인 상태로 전체 면적의 57%가 입주 완료된 상태이다.

업종으로 사료와 과자류의 제조업과 일반창고업, 위험물 창고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측배후단지의 창출물량은 2016년 기준으로 47,073TEU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전체 처리물량 중 22%를 차지한다. 서측 배후 단지는 타 항만과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감이 적은 편에 속한다. 같은 자유무역지역인 '부산항' 과 비교해도 최대 86%(부산항 321원/㎡, 광양항 129원/㎡) 저렴하다. 나아가 외투기업의 경우에는 물류업에 종사하는 경우 미화500만 불 이상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미화 1,000만 불 이상 투자가 이루어 질 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앞의 3년간은 100%, 뒤의 2년간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측배후부지는 투자 활동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식품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 여수항만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 외투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냉동 · 냉장창고 입주기업과 투자 MOU체결을 하고 1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로 인해 서측배후부지는 광양만권에 한 · 중 · 일을 잇는 콜드체인 거점과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향후 서측배후단지는 광양항 배후단지 부지 중 마지막 남은 부지로서, 이에 무분별한 입주기업 유치보다는 활성화ZONE 별로 우량 물류 · 제조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공고는 2018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2~3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광양항 서측배후 단지에 우량 물류 · 제조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수부와 여수항만공사, 광양시와 함께 중국 · 일본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

㈔여수시 관광협의회 출범…미래관광 민관산학 '협력'



여수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활동할 민관협력체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에, 2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 관광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관광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진들을 선임 · 선출 후,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수시 관광협의회는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등 공공부문과 관광협회, 관광관련 NGO 등 민간부문 50여 명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요역할은 여수 관광에 대한 조사 · 연구, 관광 상품개발 등 마케팅 지원, 관광종사자 교육 지원,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이다.

관광협의회는 민과 관 한쪽이 추진하는 관광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이 논의됐다. 여수시는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4월에 관광관련 단체와 개인의 신청(추천)을 받아 협의회 회원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협의회 구성으로 공공과 민간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광양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도비 16여억 원을 지원받아 '센터의 꿈, 사회의 꿈, 가정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제로 건립할 예정이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마동 1747-1번지에 총 4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하1층~지상 3층 규모로 일시보육실, 영아 및 유아놀이체험실, 육아카페, 프로그램실, 강당 등, 영·유와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가정 양육 아동들에게 연령에 맞는 놀이체험실과 각종 프로그램, 공연 가능한 강당 등이 조성돼 영유아 가정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영·유아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양시는 11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마치고 공사 착수를 시작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순천시

순천국가정원, 12월 8일부터 별빛축제 열린다.

순천시의 주최로 오는 12월 8일부터 1월 7일까지 한 해를 걸쳐, 별빛축제가 개최된다. 장소는 순천국가정원 서문일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산타클로스와 겨울요정이 함께 하는 산타&눈꽃 퍼레이드 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 주요 내용으로, 국가정원을 빛으로 장식하여 몽환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라이트 가든'도 선보일 예정이다. '눈꽃 퍼레이드 쇼'에서는 마칭밴드와 보컬, 댄서를 통해서 거리공연을 선보이며, 퍼레이드 차량을 활용한 포토 존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라이트 가든'은 눈꽃나무와 스노우 빌리지를 연출하는데, 빛의 바다, 숲, 광장 등이 선보일 예정이며, 테마별로 다양한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퍼레이드 쇼와 라이트 가든 이외에도 소소한 부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 공연은 마술, 인형극, 버스킹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하동 금오산 짚와이어 탑승객 3,000명 돌파



하동 금오산 짚와이어가 지난 9월 14일 개통한 이후 47일만에 탑승객 3,000명을 돌파했다. 3,000번째 주인공에게는 순금 1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가 주어졌다. 7일 하동군에 따르면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하동알프스레포츠는 개통 47일째인 지난달 31일 3,000번째 탑승한 김상훈(부산시)씨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금오산 짚와이어는 남해안 일원에 대한민국 최고의 레포츠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하동군이 추진 중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시설이다. 2015년 6월 짚와이어 설치사업에 착수해 지난 7월 완료한 뒤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수많은 시험운영을 거쳐 9월 14일 오픈했다. 금오산 짚와이어는 총연장 3.186㎞의 아시아 최장으로, 3개 구간 2라인으로 돼 있으며 남해안 일대에서 가장 높은 금오산 정상(해발 849m)에서 한려해상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최고 시속 120㎞로 하강하며 약 5분간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麗水 여수

혼자여도, 함께여도 따뜻한 겨울

겨울은 이울어져 있지 않다. 기억을 품은 채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다. 많은 이들의 기억을 켜켜이 품은 여수의 바다와 산이, 그리고 근래에 피어나는 낭만이 당신을 어루어 만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겨울이라도 따뜻할지도, 비록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철새따라 가는 길. 여자만

여수 여자만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갯벌인 2등급판정을 받았다. 여자만은 2.640만㎡ 매우 넓은 지역으로 자연 상태에서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다양한 생물상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여자만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유에는 여자만 특유의 조용한 조수의 영향도 있지만, 여자만 하천 주변의 식물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자만은 하천을 중심으로 사초, 갈대, 억새, 칠면초가 스스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갈대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우거진 곳으로, 새들이 은신처로 사용하고 먹이도 제공받으면서 자연정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겨울에는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희귀한 새들도 모여든다. 여자만의 자연환경을 생각해본다면,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우리 눈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 다른 것들과 숨 쉬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로 살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자만은 겨울 철새들이나 다른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드는 곳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겨울이 오기까지, 1년 동안 지친 사람들도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쉬어가는 곳일 지도 모른다.



용월사 해수관음상

용월사는 봉해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는 남해 바다가 훤히 보이는, 여수돌산의 해안 절벽위에 자리하고 있다. 용월사는 원래 관세음보살이 사는 보타락정토를 생각하며 세워진 사찰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용월사에선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수국과 치자,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꽃으로 일 년 내내 사찰 안에 피어있는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사찰에서 30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관세음보살님의 품에 들어와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경내에는 남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다.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보살은 어부들의 뱃길을 보살핀다고 한다. 만약 고민이나 번뇌가 있다면, 용왕전 108계단을 걸어보도록 하자.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보살님께 고민을 털어내 보자. 그리고 원통전에 들어가 탁 트인 남해바다를 탱화로 삼은 관세음보살님 앞에서면 보살님이 고민에 대한 답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보타락정토 : 관세음보살이 사는 곳으로 인도 남쪽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상상의 팔각산.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살고 밝은 빛과 꽃들이 항상 만발한다고 한다.

Tip 일출이보고 싶은 분들은 용월사를 이른 시간에 먼저 가는 것을 추천한다. 여수 사람들은 향일암보다 용월사에서 일출을 더 많이 본다고 한다.



여수낭만버스 –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실제로 구경하고 체험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거나, 최근에 일들을 하나 씩 짚어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번뇌와 고민들을 용월사의 관세음보살님께 정리해서 드리지 않았나? 이미 보살님께 의지해 답을 얻었다면, 다시 사색에 잠겨 겨우 얻은 확신이 흔들리길 원치 않는다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낭만버스를 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이순신대교에서 출발해 소호동동다리를 반환점으로 돌아 이순신광장을 종착역으로 삼으며, 여수의 유명한 명소 9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안에서는 출발부터 반환점인 소호동동다리에 도착할 때 까지는 연극공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반환점을 지나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킹 공연이 이어진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지나는 코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늦은 시간에 운행되기 때문에, 주로 조명을 이용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소호동동다리는 바다 위를 건너는 다리를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아놔서, 늦은 시간에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운치 있는 느낌을 줄 것이다.

*이순신광장(19:30) – 히든베이호텔(19:45) – 소호동동다리(19:55) – 20분 하차 – 문화의거리(20:35) – 돌산대교(20:50) – 거북선대교(21:00) – 여수엑스포(21:10)









Tip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자리 싸움이 치열하니,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하루를 착실하게 돌아다니며 여행에 몰두했다면,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출출한 배와 마른 목을 축이도록 하자. 추천 할 수 있는 해산물 메뉴는 대하와 오징어, 굴떡국을 추천 할 수 있겠다. 꼭 해산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제육, 족발, 닭똥집부터 오꼬노미야끼 까지 다양한 안주들이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휴가철이라면 생각했던 것 보다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만약 이 인파속에서 혼술 할 자신이 없는 혼술족은 포장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늦은 밤이라 어두워서 바다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가끔씩 다니는 유람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오후 일곱 시부터 오전 다섯 시까지 운영한다. 굳이 마감시간 꽉 채워서 앉아 있을 필요 없으니, 적당히 먹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번뇌가 다시 쌓이지 않게 말이다.

Festival

글 편집실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



12.31~1.1 여수 항일함 해돋이 축제





연중 광양 느랭이골 빛축제



연중 순천 다례(茶禮)체험







연중 하동 도자기체험







여수 항일암 해돋이 축제

여수 향일암에서는 매년 12월 31일에 일출제 전야제가 열리고 있다. 12월 31일 저녁부터 길농악 풍물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섹소폰, 트럼펫, 그리고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관광객 즉석 골든벨 퀴즈와 소원 촛불 밝히기, 그리고 새해 카운트다운 등, 전야제 모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전야제가 끝나고 새해가 밝아 올 즈음, 흥겨운 사물놀이가 새벽을 깨운다. 이어서 돌산향교의 향교장이 일출제례를 지내고 나면, 새해의 첫 일출과 함께 소원 풍선 띄우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017. 12. 31.(일) ~ 2018. 1. 1.(월)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일원
061-644-4247
ttp://tour.yeosu.go.kr

광양 느랭이골 빛축제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난다'는 말이 있다. 광양 느랭이골은 항시 1,500만개로 이뤄진 LED빛이 느랭이골의 밤을 가득 채워, 밤하늘의 별빛이 내린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느랭이골 빛축제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포토존으로 '속마음 터널'과 그 외에 동식물이나, 암석 같은 자연을 활용한 LED로 느랭이골을 밝게 비춘다. 글램핑을 이용하면 별빛 축제도 입장이 가능한데, 느랭이골 글램핑은 선진 캠핑, 야영문화를 주도하며, 해발 450m의 편백나무숲 속에서 각 40동의 글램핑과 야영장 시설이 완비되어있어 남녀노소 편안하고 안락한 캠핑과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연중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토끼재길 119-32(다압면)
1588-2704
http://www.neuraengigol.com

하동 도자기체험 – 사기아름마을

백련(白蓮)리 새미골 도요지는 16.17세기 조선 자기의 본류인 분청, 상감, 철화백자를 굽던 곳으로 전통 막사발의 본고장이자 일본 국보 찻잔인 이도다완(井戶茶碗) 생산지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옛 도공의 후손들이 조선 막사발의 명성을 재현하고 있으며 2002년 국내 영화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영화 취화선의 촬영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백련리에는 가마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으며, 토기나 자기를 굽는 가마를 도요지라고 하는데 하동 백련리의 도요지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 24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중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기아름길 사기아름마을
055)882-4080
http://tour.hadong.go.kr

순천 다례(茶禮)체험 – 야생차체험관

전통야생차 체험관은 조계산 선암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순천에서 생산되는 차를 시음 할 수 있으며 단체로 예약하여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곳이다. 야생차체험관은 맑고 푸른 길에,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숲 속 정취 또한 느낄 수 있다. 또한 한옥체험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한옥의 단아한 멋 안에서 은은한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 저절로 옛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한옥의 멋과 차가 주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바쁜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한 결 더 여유로워진 마음을 얻어 갈 수 있는 장소이다.

연중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061-749-4202, 4203
http://tour.suncheon.go.kr/tour/



훅, 평소에 걸으면서도 목이나 허리, 어깨를 부여잡으며 통증을 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은 당신이 열심히 일했기에 얻은 영광의 상처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해야 할 인생의 동반자는 더욱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서서히 떨어뜨려 갈 것이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 서있는 것,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직장인의 바른 자세

"몸이 뻐근한데……, 이거 나만 이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자목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1,134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자목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 목 디스크 환자 또한 87만여 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24.3%정도 증가했다.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부위는 목 뿐 만이 아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16만 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손목을 주로 사용하는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나 전업주부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손목터널 증후군 역시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꺾인 채로 장시간 같은 작업이나 반복동작으로 인해, 팔과 손을 이어주는 신경이 손목 인대에 눌려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난 이 자세가 편한데……."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환의 증세가 보인다면, 그 자세가 정말 편한 자세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야 할 문제이다. 자신이 취하고 있는 편한 자세가, 바르게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서 취하는 자세라면 더욱 그렇다. 바르게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골격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자주 취하는 나쁜 자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혹 이 3가지 중에 자신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다리꼬기

장시간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져 척추가 휘고 허리디스크로 이어지게 된다. 보통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한쪽 다리를 꼬는 경우에는, 꼰 다리가 향하는 쪽으로만 골반에 체중이 쏠려 골반이 틀어지게 된다. 이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다리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골반 옆 라인부터 엉덩이까지 군살이 붙어 엉덩이 아래로 지방을 몰리면서 엉덩이가 넓어 보이게 되어,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턱괴기

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는 목뼈와 관절을 비틀어지게 하고, 만약 한쪽으로만 턱을 괴면 턱관절이 틀어져 안면비대칭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턱을 괴었을 때는 턱이 앞으로 나와 주걱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턱괴기는 외형 뿐만 아니라, 목뼈에 가해지는 힘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해 목뼈 뒤쪽 관절이 비틀어져 두통, 나아가서는 시력장애까지 유발하게 한다.

3. 구부정한 자세

목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거북목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고개가 앞으로 빠질수록 목뼈에 하중이 심하게 실리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목덜미와 어깨가 결리고, 나아가서 숙면을 방해해 심한 피로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냥 일자로 있으면 되나?"

먼저 자신의 평소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따라해보며,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1. 바로 섰을 때 양쪽 어깨나 손끝 높이에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정면을 바로 보고 섰을 때 손가락이 엄지와 검지 두 개만 보여야 한다.
3. 바로 서서 다리를 10cm 정도 벌렸을 때 무릎 뼈가 정면을 향해야 한다.
4. 바로 누웠을 때 발끝 위치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
5. 옆모습일 때 어깨 봉제선과 귓구멍이 수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위의 자세를 취했을 때 서술된 내용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평소의 자세가 좋지 않은 것일 확률이 높으므로 바른 자세를 숙지하여 자세를 고치도록하자.

직장인들을 위한 바른 앉은 자세 TIP



1. 어깨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이 되게 한다.
2. 엉덩이를 의자 안쪽 깊숙이 넣고 허리는 의자 등받이에 딱 붙인다. 이때 허리에 쿠션을 둔다면 자세 교정 효과는 높아진다.
3. 목과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책상과 의자 사이가 멀지 않게 붙어 앉는다.
4. 의자 끝에 걸터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다.
5. 의자의 높낮이는 무릎이 골반보다 같거나 약간 높이 오게 맞춘다.
6. 모니터 받침대를 활용하여 모니터의 상단 1/3 정도에 눈높이를 맞춘다.

출처 금융감독원 www.fss.or.kr

음주운전 적발시 받게 될 자동차보험상의 불이익 7가지

술독에 빠져 산다는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매년 이 맘때가 되면 음주운전 사고 역시 급증한다.
혹시 음주운전을 종종 하고 있고, 음주운전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라면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적발시 받게 될 불이익 7가지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기타 특약 등)
* "공동인수 제도"란?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자 등 사고위험이 높아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여러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 일부 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료가 할증됨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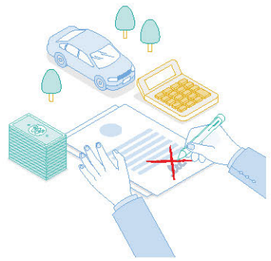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6. 형사합의금 ·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시 받게 될 '자동차보험상'의 7가지 불이익을 살펴보았다. 이는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상'의 불이익일 뿐이다. 혈중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각 상황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이나 처벌이 사후에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인식되기 보다는 범죄나 사고 등을 사전에 경계하여 예방하는 기능으로 먼저 인식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그러므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생각하기 이전에 안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을 생각해, 자신의 도덕심과 양심에 기대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Cartoon

기획 송명석
일러스트 문상응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를 통해 기업설립 비용 부담을 덜어보아요!





























*전남도청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담당관
061-286-5172
http://namdo.jeonnam.go.kr/invest/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획팀
061-760-5561, 5563
http://www.gfez.go.kr/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탐나는 정보가 가득,

sns

GFEZ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GFEZ 저널을 읽고 느낀점이나 독자의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칼럼이 좋았어요!

People '완벽한' 정밀 가공을 위해 달린다 (주)삼...



입주기업 (주)삼미메탈과 같은 상세한 취재내용으로 현장감있는 뉴스를 접하게 된 점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감 있는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안용진 독자

Trip 깊어가는 가을색의 잔잔한 위안 순천



GFEZ journal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유익했어요.특히 여행지 순천의 가이드는 정말 여행가방을 꾸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해질녘의 아름다운 와온해변은 꼭 가보려고 해요.

정이랑 독자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신 독자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광양청 웹진 주소(http://webzine.gfez.or.kr)를 입력해 비밀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기간 2018년 1월 30일 까지

당첨자 선물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등 (2명)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권

3등 (5명)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지난호 당첨자

1등 정＊랑(7172)

2등 안＊진(7455), 최＊용(4716)

3등 함＊아(9074), 이＊순(4001), 신＊이(5974), 함＊아(4268)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 6개 지구 18개 단지(69.50㎢)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산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물류산업–광양지구
· 제조산업–율촌지구
· 주거산업–신덕지구
· 복합산업–하동지구
· 관광산업–화양지구
· 관광산업–경도지구



동북아 비즈니스 투자 ① 번지

www.gfez.go.kr

최적의 산업인프라



· POSCO 광양제철소



· 여수국가산업단지
· 풍부한 산업단지 보유
· 저렴한 지가로 즉시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확보

편리한 교통인프라



· 세계적인 국제항만–광양항
(2016년 약284백만톤 처리)
· 1시간권 항공시설–4개 보유
(광주, 여수, 사천, 무안)
· 수도권 연결 KTX (여수-순천-서울)
· 5개의 고속도로 연결
(수도권 3시간대 접근 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 중심지 세풍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사업면적 : 2.43㎢ (73만평)
분양면적 (53만평)

·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 외국인 투자지역
· 바이오 패키징 산단
· 제철 연관산업

"2017년 12월말까지 투자자에 한해 분양가 15% 할인!"

관광·레저, 생활환경



·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 3개의 국립공원과 100km이내 530만명 배후시장확보
· 여수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관광레저 허브 구축



·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레저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지원

투자상담에서 사업개시까지 Non-Stop 서비스 ⊕ 업종에 맞는 입지선정 지원 ⊕ 시장조사 및 기업 협력파트너 알선 ⊕ 경영지원 보조금 지원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Tel 061-760-5114 Fax 061-760-5703